

중년기 남성의 아버지 역할 정체감과 아버지 역할수행

한 유 진(명지대학교 교수)

중년기는 생애단계상 지난 삶을 정리하고 인생의 반환점을 돌면서 새로운 전환을 꾀하는 제 2의 인생출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는 신체적 기능의 쇠퇴가 발생하면서 개인의 많은 사회, 심리적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 정체감의 재평가는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발제자가 밝히 바와 같이 중년기 여성의 자아정체감 연구에 비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으며 특히, 이 시기 아버지로서 남성이 갖는 아버지 역할 정체감에 대한 고찰이나 실증연구가 부족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년기 남성의 아버지의 역할 정체감과 역할 수행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중년기 아버지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 내 역할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논문에서 아버지 역할 기대에 대한 변화과정 고찰을 통하여 현대 아버지 역할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을 확인해 준 것은 의의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오늘날의 아버지는 생계유지자로서 역할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이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역할이 추가되어 역할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년기 아버지들은 경제적 능력을 더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니 현대 우리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양육방식에 의해 자라온 아버지들은 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아버지 역할에 익숙하지 않아 갈등과 죄책감까지 느끼는 등 아버지 역할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50대 중년 남성의 경우 아버지 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연구가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최근 논문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결과를 충실히 고찰한 발제자의 수고를 읽을 수 있었으며,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점은 중년기 아버지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침을 제시해 주었더라면 하는 바램이 그것입니다. 이 글의 결론으로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근무시간의 유연성,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너무 당위론적이며 모든 연령대의 아버지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연구의 주제가 중년기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년기 정체성 위기감과 아버지로서의 역할 정체감 및 수행에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아버지들을 위한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대책이 좀 더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